

## **Session 19 David Brought the Ark to Jerusalem (2 Sam. 6)** **제 19장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 (삼하 6장)**

### **I. THE LORD CHOSE JERUSALEM AS THE PLACE FOR HIS TEMPLE AND THE ARK**

주님이 예루살렘을 성전과 언약궤를 둘 장소로 택하시다

- A. After David conquered Jerusalem and built the city up, next he cut off the Philistines who had gathered against them in the Valley of Rephaim about one mile outside of Jerusalem (2 Sam. 5). Once Jerusalem was secured, the first act of David as recorded in the Scripture was epic—he brought the ark to Jerusalem. I believe that David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bringing the ark to Jerusalem; it was the divinely chosen city. Jesus called it the city of the great King (Mt. 5:35).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를 세운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1 마일(1.6km) 떨어진 곳인 르바임 골짜기에서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블레셋을 막아냈다(삼하 5 장). 예루살렘을 안전한 곳으로 만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나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도시는 큰 임금의 성 (한글 KJV,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부르셨다(마 5:35).

1. The Lord spoke to Moses about a place where He would choose to put His name (Deut. 12:5).

주님은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신 12:5)

<sup>5</sup>*But you shall seek the place where the LORD your God chooses, out of all your tribes, to put His name for His dwelling place; and there you shall go. (Deut. 12:5)*

<sup>5</sup>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 12:5)

<sup>5</sup>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한글 KJV, 신 12:5)

2. God confirmed to Solomon He had chosen Jerusalem as the city in which to build His temple. Jesus will establish the millennial temple on Mt. Zion in Jerusalem. (Jer. 3:17; Zech. 6:17).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이 자신의 성전을 지을 도시임을 확인해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천년왕국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렘 3:17; 스 6:17).

<sup>5</sup>*“Since...I brought My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I have chosen no city...in which to build a house [the temple], that My name might be there...” <sup>6</sup>*I have chosen Jerusalem, that My name may be there, and I have chosen David to be over My people...” (2 Chr. 6:5-6)**

<sup>5</sup>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 <sup>6</sup>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대하 6:5-6)

- B. The ark was associated with God’s manifested power and presence. It was a symbol of God’s throne and a type of the Lord Jesus, the ultimate King of Israel.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고,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 C. I believe that from his youth David understood that Jerusalem was the city chosen by God even though the Jebusites were still in control of it. David grew up in Bethlehem which was only about five miles south of Jerusalem. After David killed Goliath in the valley of Élan, he cut Goliath’s head off and walked about 10 miles to place his head in Jerusalem. This was a prophetic act.

나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비록 여부스 족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약 5 마일 (8km) 떨어진 곳인 베들레헴에서 자라났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10 마일(16km) 정도 떨어진 곳인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 두었다. 이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

- D. As a young man, David vowed to dedicate his life to finding a “dwelling place” (Ps. 132:5, 13) for God. His vow included establishing a building in Jerusalem for the ark to be placed. David grew up in Ephrathah (Bethlehem), hearing “revival stories” of God’s power associated with the ark (v. 6).

젊은 청년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찾는 것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시 132:5, 13). 그의 서원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둘 장소를 세우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다윗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언약궤와 연관된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났다 (6 절).

<sup>1</sup>LORD, remember David...<sup>2</sup>How he...vowed to the Mighty One of Jacob: <sup>3</sup>“Surely I will not... go up to the comfort of my bed; <sup>4</sup>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sup>5</sup>Until I find a place [a temple to house the ark]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 of Jacob.”<sup>6</sup>Behold, we heard of it in Ephrathah [Bethlehem]; we found it in the fields [Kirjath Jearim]. (Ps. 132:1-6)

<sup>1</sup>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sup>2</sup> 그가 여호와와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sup>3</sup>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 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sup>4</sup>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 <sup>5</sup>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언약궤를 둘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sup>6</sup>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베들레헴]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기랴아림]에서 찾았도다 (시 132:1-6)

- E. The ark sat in the small forest village of Kirjath Jearim (lit. *the fields of the forests*) in the house of Abinadab, where it lay neglected for about 70 years. Ephrathah and Bethlehem are the same place (Ruth 1:2; 4:11; 1 Sam. 17:12; Mic. 5:2). Ephrathah was the name of a family in Bethlehem; their importance made their name synonymous with Bethlehem (1 Chr. 2:19; 2:50; 4:4). Bethlehem was about 10 miles from Kirjath Jearim.

언약궤는 기랴아림(문자적으로, 숲 들판)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의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언약궤는 70 년간 이곳에서 잊혀져 있었다.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동일한 장소이다 (룻 1:2; 4:11; 삼상 17:12; 미 5:2).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안의 이름이었으며, 이들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은 베들레헴과 동격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상 2:19; 2:50; 4:4). 베들레헴은 기랴아림에서 10 마일 정도 (16km) 떨어진 곳이었다.

- F. David sought to bring the ark to its rightful place of honor in the center of Israel’s life in Jerusalem. The first thing David did after he put the ark in Jerusalem was put singers and musicians in place.

다윗은 언약궤를 두기에 올바른 장소인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둔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노래하는 자와 악기 다루는 자를 그 앞에 두는 것이었다.

- G.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seen in 2 Samuel 6 is that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삼하 6 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 H. **The ark:** About 70 years before David brought the ark to Jerusalem, the Philistines captured it from Israel. The ark remained with the Philistines for seven difficult and dramatic months (1 Sam. 5-6). First they put it in the temple of Dagon located in the Philistine city of *Ashdod*. The image of Dagon fell before the ark. They set the Dagon idol back in its place, and the next day it again fell before the ark. Then the Lord struck the people of Ashdod with tumors. They moved to ark to *Gath*; the Lord also struck that city with destruction and tumors. Then they sent the ark to the city of *Ekron*. Again, the Lord sent destruction on that city and those who survived were stricken with the tumors. Finally the Philistines put the ark on a new cart and sent it to Israelite city of *Beth Shemesh*. There the Israelites looked into the ark, whereupon the Lord struck them, killing over 50,000 people. They said, “Who is able to stand before this holy God?” They sent the ark to *Kirjath Jearim*.

**언약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약 70 년 전쯤, 블레셋인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했다. 이 언약궤는 7 달 동안 블레셋에서 순탄치 않은 극적인 시간을 보냈다 (삼상 5-6 장). 첫째, 그들은 언약궤를 블레셋 도시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다.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버렸다. 그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지만, 이는 그 다음 날 또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셨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으며, 주님은 또 다시 이 도시를 파괴하고 종기로 치셨다. 그러자 이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주님은 또 다시 도시를 파괴하셨으며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종기로 치셨다. 블레셋인들은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새 수레에 두고 이를 이스라엘 도시인 **벧세메스**로 보냈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인해 주님이 그들을 치셔서 5 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언약궤를 **기랴트여아림**으로 돌려보냈다.

## II. DAVID SOUGHT TO BRING THE ARK TO JERUSALEM (1 SAM. 6:1-5)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다 (삼상 6:1-5)

- A. David organized a national gathering that included 30,000 leaders to bring the ark to Jerusalem (6:1-2). David gathered the leaders to Baale Judah (also known as Kiriath Jearim), a small town in Judah where the ark had been kept in the house of Abinadab for about 70 years (1 Sam. 7:1-3).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나라의 3 만명의 지도자들을 부르며 국가적인 회합을 열었다 (6:1-2). 다윗은 언약궤가 70 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유다의 작은 성읍인 바알레유다 (기랴트여아림으로도 알려진 곳)로 지도자들을 모았다 (삼상 7:1-3).

<sup>1</sup>David gathered all the choice men of Israel, thirty thousand. <sup>2</sup>And David arose and went with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from Baale Judah [Kirjath Jearim]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whose name is called by the Name, the LORD of Hosts... (2 Sam. 6:1-2)

<sup>1</sup>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sup>2</sup>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기랴트여아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삼하 6:1-2)

- B. They set the ark on a new cart, and Ahio led the procession with his brother Uzzah (6:3-4). This violated the way in which the God commanded Israel to transport of the ark—to carry it on their shoulders (Num. 4:15; 7:9). Years earlier the Philistines transported the ark on a cart (1 Sam 6:7).

그들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으며, 아효와 그의 형제인 웃시야가 이 행렬을 이끌었다 (6:3-4).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어깨에 둘러메고 옮겨야 함)을 어긴 것이었다. (민 4:15; 7:9). 수십 년 전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었다 (삼상 6:7).

<sup>3</sup>So they set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and brought it out of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and Uzzah and Ahio, the sons of Abinadab, drove the new cart. (2 Sam. 6:3)

<sup>3</sup>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삼하 6:3)

<sup>7</sup>Now...make a new cart... <sup>8</sup>Take the ark of the LORD and set it on the cart... (1 Sam 6:7-8)

<sup>7</sup>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 <sup>8</sup> 여호와와 그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 (삼상 6:7-8)

- C. **New cart:** We need to understand this because the Scripture emphasizes it as a significant event in David's life. Even David as God's chosen and anointed one had to honor God's ways.

새 수레: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성경이 이 사건을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God commanded Israel that the Levites transport the ark, carrying it with the poles on their shoulders (Num. 4:15; 7:9). Because the ark was holy, it was to be covered and carried on poles to keep it from the gaze and touch of men who were not consecrated to handle i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길 것을 명령하셨으며, 어깨에 채(막대기)를 메고 옮길 것을 말씀하셨다 (민 4:15; 7:9). 이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었기에, 덮여 있고 어깨에 매어져 있어서 이를 다루도록 성별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쳐다보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다.

<sup>5</sup>When the camp prepares to journey...they shall...cover the ark...<sup>6</sup>They shall put on it a covering...and they shall insert its poles... <sup>15</sup>When the camp is set to go, then the sons of Kohath shall come to carry them; but they shall not touch any holy thing, lest they die. (Num. 4:5-15)

<sup>5</sup>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sup>6</sup>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 그 채를 꿰고 ... <sup>15</sup>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뺄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 (민 4:5-15)

2. David's zeal and motives were good, but he approached what was holy in a wrong way.

다윗의 열심과 동기는 좋았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sup>13</sup>...God broke out against us, because we did not consult Him about the proper order"... <sup>15</sup>So...the children of the Levites bore the ark of God on their shoulders, by its poles, as Moses had commande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1 Chr. 15:13-15)

<sup>13</sup>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 <sup>15</sup>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꺾어 어깨에 메니라 (대상 15:13-15)

- D. David led the procession of the ark to Jerusalem with many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s (6:5). They sang and played music with *stringed instruments* like the harp and lyre, and *percussion instruments* as tambourines, sistrums [a rattle], cymbals, and trumpets (2 Sam. 6:5; 1 Chr. 13:8).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이끌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가 함께 하고 있었다 (6:5). 그들은 하프나 수금과 같은 현악기와 탬버린이나 소고, 제금(심벌)과 같은 타악기, 그리고 나팔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삼하 6:5; 대상 13:8).

<sup>5</sup> *Then David and all the house of Israel played music before the LORD on all kinds of instruments of fir wood, on harps, on stringed instruments, on tambourines, on sistrums, and on cymbals.* (2 Sam. 6:5)

<sup>5</sup>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삼하 6:5)

<sup>8</sup> *Then David and all Israel played music before God with all their might, with singing, on harps, on stringed instruments, on tambourines, on cymbals, and with trumpets.* (1 Chr. 13:8)

<sup>8</sup>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대상 13:8)

### III. THE LORD RELEASED HIS JUDGMENT ON UZZAH (1 SAM. 6:6-9)

주님이 웃시야를 심판하시다 (삼상 6:6-9)

- A. The oxen stumbled as they were pulling the cart down a hill, and Uzzah put his hand on the ark to steady it so it would not fall (6:6-7). God had commanded Israel not to touch the ark—it was their holiest possession (Num. 4:15). The Lord’s anger burned at Uzzah’s presumptuous action that violated God’s word. This was the third example of God protecting the ark (1 Sam 5:3-12; 6:19-20).

이 소들은 수레를 내리막길로 끌면서 비틀거렸으며, 웃시야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붙들었다 (6:6-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었다 (민 4:15).

<sup>6</sup> *And when they came to Nachon’s threshing floor, Uzzah put out his hand to the ark of God and took hold of it, for the oxen stumbled. <sup>7</sup>Then the anger of the LORD was aroused against Uzzah, and God struck him there for his error; and he died there by the ark of God.* (2 Sam. 6:6-7)

<sup>6</sup>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sup>7</sup>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라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삼하 6:6-7)

- B. **Leadership lesson:** Obviously new covenant believers will not die for touching a “holy” article in a worship service. But the principle is clear that it is important to approach worship and ministry in a way that the Word instructs us as we seek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and blessing. Practically, the platform ministry style in some ministry settings today resemble secular pop artists, movie stars, or cultural icons who draw attention to themselves without regard for God’s Word or for God-centered worship or ministry. They are focused on being popular and getting people to respond to them without paying attention to God’s Word in their content, ministry style, or public expression.

**리더십 강의:** 명확하게 신약의 신자들은 예배 장소에 있는 “거룩한” 집기들에 손을 댄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원리는, 우리가 예배나 사역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의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사역 강단에서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나 사역이 아닌, 세속적인 팝 가수나 영화 배우나 문화의 아이콘들이 자신들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과 닮아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가르침이나 사역 스타일, 대중 앞에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응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C. David became angry and then fearful because Uzzah was struck dead by the Lord (6:8-9).

다윗은 화가 났으며, 그리고는 주님이 웃시야를 치셔서 그가 죽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다 (6:8-9)

<sup>8</sup>And David became angry because of the LORD’s outbreak against Uzzah...<sup>9</sup>David was afraid of the LORD that day; and he said, “How can the ark of the LORD come to me. (2 Sam. 6:8-9)

<sup>8</sup>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sup>9</sup>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삼하 6:8-9)

#### IV. THE ARK WAS PLACED IN THE HOUSE OF OBED-EDOM (1 SAM. 6:10-12)

언약궤가 오벧에돔의 집에 놓여지다 (삼상 6:10-12)

- A. David put a pause on his plan to bring the ark with him to the City of David (6:10-12a). He did not want to risk the danger of the ark entering Jerusalem. Later David was told that Obed-Edom was being blessed, not judged as Uzzah. This is the blessing that David wanted for the City of David.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잠시 중단시켰다 (6:10-12a).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후에 다윗은 오벧에돔이 웃시야와 같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다윗이 다윗 성에 가지고 오고 싶었던 축복이었다.

<sup>10</sup>So David would not move the ark of the LORD with him into the City of David; but David took it aside in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sup>11</sup>The ark of the LORD remained in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three months. And the LORD blessed Obed-Edom and all his household. <sup>12</sup>Now it was told King David, saying, “The LORD has blessed the house of Obed-Edom and all that belongs to him, because of the ark of God.” (2 Sam. 6:10-12)

<sup>10</sup>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sup>11</sup>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셋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sup>12</sup>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삼하 6:10-12)

- B. The ark as a type of Christ was honored in home of Obed-Edom, bringing blessing to his family.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이 언약궤는 오벧에돔의 집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으며, 이 가족에 복을 가져왔다.

V. DAVID BROUGHT THE ARK TO THE CITY OF DAVID IN JERUSALEM (1 SAM. 6:12-19)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 성으로 옮기다 (삼상 6:12-19)

- A. David brought up the ark from the house of Obed-Edom to the City of David (6:12b-15). He moved the ark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e Scripture, not on a cart. God's ways are to be done with gladness, but also with reverence and obedience to His leadership and Word.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6:1b-15). 그는 언약궤를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대로 옮겨왔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쁨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그분의 리더십과 말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가지고 지켜져야 한다.

<sup>12</sup>David...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the house of Obed-Edom to the City of David with gladness... <sup>14</sup>Davi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and David was wearing a linen ephod... <sup>16</sup>As the ark...came into the City of David, Michal...looked through a window and saw David leaping and whirling before the LORD; and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2 Sam. 6:12-16)

<sup>12</sup> ...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 <sup>14</sup>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 <sup>16</sup> 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삼하 6:12-16)

<sup>25</sup>David...went to bring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rom the house of Obed-Edom with joy... <sup>27</sup>David was clothed with a robe of fine linen, as were all the Levites who bore the ark, the singers, and Chenaniah the music master with the singers. David also wore a linen ephod. (1 Chr. 15:25-27)

<sup>25</sup>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 <sup>27</sup> 다윗과 및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대상 15:25-27)

1. **Robe of fine linen:** David laid aside his royal robes to wear a linen ephod that was the ordinary garment of a priest, yet also used by those who were not priests (1 Sam 2:18).

**세마포 겹옷:** 다윗은 자신의 왕의 옷을 벗고 베 에봇을 입었는데, 이는 제사장의 복장이기도 했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입기도 했다 (삼상 2:18).

2. **Despised him:** Michal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ion, but watched it from a palace window (6:16). It seems that Michal was offended at David and at God for what happened to her family and so she viewed David and his activities through the critical lens of bitterness.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이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6:16). 미갈은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 다윗과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녀는 다윗과 그의 행동을 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 B. David set the ark in the tent erected in Jerusalem, then blessed the people and celebrated (6:17-19).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에 두었고, 백성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했다 (6:17-19).

*<sup>17</sup>So they brought the ark of the LORD, and set it in its place in the midst of the tabernacle [tent] that David had erected for it...<sup>18</sup>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sup>19</sup>Then he distributed among all the people...a loaf of bread, a piece of meat, and a cake of raisins. (2 Sam. 6:17-19)*

<sup>17</sup> 여호와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 <sup>18</sup> 다윗이 ... 만군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sup>19</sup>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6:17-19)

## VI. MICHAL MOCKED DAVID (1 SAM. 6:20-23)

미갈이 다윗을 비웃다 (삼상 6:20-23)

- A. As David blessed his household, Michal mocked him for his devotion to God (6:20-23). Because David laid aside his royal robes to wear a plain linen ephod she falsely charged him with immodesty. She misrepresented David's actions. She looked on David's zeal as degrading to his high office and therefore to her status. It is common for people to exaggerate situations when they are offended.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할 때, 미갈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조롱했다 (6:20-23). 그녀는 다윗이 자신의 왕복을 벗고 평범한 베 에봇을 입고 있었던 것이 천박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다. 그녀는 다윗의 열심이 그의 높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으며, 또한 그녀 자신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고 바라봤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상황을 과장하기도 한다.

*<sup>20</sup>Then David returned to bless his household. And Michal the daughter of Saul came out to meet David, and said, "How glorious was the king of Israel today, uncovering himself today in the eyes of the maids of his servants, as one of the base fellows shamelessly uncovers himself!"<sup>21</sup>So David said to Michal, "It was before the LORD, who chose me instead of your father and all his house, to appoint me ruler over the people of the LORD, over Israel. Therefore I will play music before the LORD.<sup>22</sup>I will be even more undignified than this, and will be humble in my own sight. But as for the maidservants of whom you have spoken, by them I will be held in honor."<sup>23</sup>Therefore Michal the daughter of Saul had no children to the day of her death. (2 Sam. 6:20-23)*

<sup>20</sup>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sup>21</sup>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sup>22</sup>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sup>23</sup>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삼하 6:2-23)

- B. He was accustomed to being criticized for his zeal for God (Ps. 69:7-10). This is part of his calling.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시 69:7-10). 이는 그의 부르심의 일부분이었다.



C. *Leadership lesson:* When serving in ministry, we must be committed not to overlook our families.

리더십 강의: 사역 가운데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등한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